

일부 치과위생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요인

한세영 · 조영채¹ · 민희홍² · 지민경³

대전대학 치위생과, ¹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 ³전북과학대학 치위생과

색인 : 치과위생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직무스트레스 요인

1. 서론

현대사회의 다원화, 전문화로 인한 생활양식 수준 및 인간관계의 변화로 인간의 건강수준과 제반 보건문제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직장에서 겪게 되는 업무과중, 역할갈등, 업무자율성의 결여 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¹⁾. 스트레스와 업무는 피할 수 없는 현상²⁾으로 스트레스란 개념은 건강이나 질병과 연관되어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었다³⁾.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변화를 경험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⁴⁻⁵⁾.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증가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이 발달되었고, 의료 소비자들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한 영역을 담당하는 구강보건 분야

또한 과거에 비해 전문화, 분업화되고 있고, 구강 질환의 예방, 위생,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주체인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⁶⁾.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문직이 타 직종인 사무직, 노동직 및 서비스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고⁷⁾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불분명한 업무의 분업화 등으로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구강진료 대상자들의 치과 친절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문제시되고 있다⁸⁾. 결국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는 직무의 특성과 더불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측정도구를 이용한 스트레스를 평가한 연구는 제한적이고,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같은 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대전광역시 소재 치과외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는 병원별 치과위생사의 도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한 후 밀봉하여 회수하였고,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46부를 제외한 276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자료는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고, 구성은 치과위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12문항, 건강관련 행위 4문항,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업무 요구도 5문항 및 업무 자율성 9문항, 직장의 사회적 지지 8문항(상사의 지지 4문항, 동료의 지지 4문항),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18문항(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으로 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내용은 Karasek 등⁹⁾의 직무내용 설문지(Job Content Questionnaire; JCQ)를 우리나라 근무환경에 맞게 변안하여¹⁰⁾ 4점 척도로 하였고, 직장의 사회적 지지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지는 4점 척도로 Karasek 등⁹⁾의 점수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였고, 업무의 요구도와 업무의 자율성 및 직장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각각 0.668, 0.748, 0.857이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Goldberg¹¹⁾의 일반건강 측정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로 개발된 18항목을 이용하여¹²⁾ Likert의 4점 척도로 각 항목에서 「항상 그렇다」 0점, 「자주 그렇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각 항목에서 「항상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여 PWI를 산정하였다. 총점이 8점 이하인 군을 「건강군」, 9점에서 26점까지를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구분하였고, Cronbach's α 값은 0.884였다.

2.3. 통계분석

연구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Ver. 13.0) 통계 프로그램으로, 각 독립변수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제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수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3.1.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은 군일수록($p=0.029$), 결혼 유무별로는 미혼군에서($p=0.035$), 취미생활 유무별로는 취미가 없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1. Mean values of psychosocial distres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Psychosocial distress	
		Mean±D	p-value
Age(year)			0.029
≤24	190	23.28±8.11	
25≤	86	21.03±7.38	
Marital status			0.035
Unmarried	212	23.14±7.87	
Married	64	20.75±7.98	
Hobby time			0.003
Yes	157	21.36±7.65	
No	119	24.19±8.08	
Education			0.429
≤Junior college	222	22.77±7.69	
College≤	54	21.81±8.96	
Total	276	22.58±7.95	

($p=0.003$)〈Table 1〉.

3.1.2. 직업관련 특성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근무 경력별로는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p=0.015$), 월평균 급여별로는 평균 급여가 적을수록($p=0.008$),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별로는 「낮다」는 군일수록($p=0.003$), 치과위생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별로는 「낮다」는 군일수록($p=0.008$), 치과위생사들의 지위에 대한 전망별로는 「현재보다 못할 것이다」는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0$)〈Table 2〉.

3.1.3. 건강관련 행위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규칙적 운동 여부별로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운동군에서($p=0.024$), 규칙적인 식사 여부별로는 규칙적으로 하는 군보다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5$)〈Table 3〉.

3.1.4.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업무 요구도별로는 업무 요구도가 높을 때($p=0.000$), 업무 자율성별로는 업무 자율성이 낮을 때($p=0.012$),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별로는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 때($p=0.004$), 동료의 지지도별로는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 때($p=0.048$), 상사의 지지도와 동료의 지지도를 합한 사회적 지지도별로는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p=0.001$)〈Table 4〉.

3.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연령($r=-0.115$, $p=0.049$), 근무 경력($r=-0.148$, $p=0.014$), 월평균 급여($r=-0.152$, $p=0.012$),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r=-0.202$, $p=0.001$), 치과위생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r=-0.187$, $p=0.002$), 치과위생사들의 지위에 대한 전망($r=-0.233$, $p=0.000$),

Table 2. Mean values of psychosocial distress according to job-related factors

Variables	Classification	N	Psychosocial distress	
			Mean±D	p-value
Clinical career(year)	≤4	175	23.47±8.08	0.015
	5≤	101	21.05±7.52	
Salary(10 ⁴ Won)	< 160	122	24.00±7.96	0.008
	160≤	154	21.46±7.78	
Job work(hour/day)	≤9	212	22.28±7.97	0.254
	10≤	64	23.58±7.85	
Overtime work(hour/week)	≤1	187	22.05±7.60	0.109
	2≤	89	23.70±8.57	
Patient number(/day)	≤49	173	22.50±8.05	0.828
	50≤	103	22.72±7.81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High	23	19.09±7.12	0.003
	Medium	207	22.30±8.00	
	Low	46	25.59±7.24	
Socioeconomic status of dental hygienist	High	14	18.71±7.93	0.008
	Medium	207	22.16±7.89	
	Low	55	25.15±7.62	
Future status of dental hygienist	Better than current status	142	20.96±8.12	0.000
	Same with current status	106	23.54±7.13	
	Worse than current status	28	27.18±7.87	
Total		276	22.58±7.95	

Table 3. Mean values of psychosocial distress according to health-related

Variables	Classification	N	Psychosocial distress	
			Mean±D	p-value
Alcohol drinking	Drinker	194	23.12±7.92	0.085
	Non-drinker	82	21.32±7.92	
Regularly exercise	Yes	70	20.73±7.07	0.024
	No	206	23.21±8.14	
Eating habits	Regularly	202	21.88±7.85	0.015
	Irregularly	74	24.50±7.96	
Sleeping hours(/day)	7~8	154	22.06±7.30	0.234
	<7 or 8<	122	23.24±8.68	
Total		276	22.58±7.95	

Table 4. Mean values of psychosocial distress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Psychosocial distress	
			Mean±D	p-value
Job demand	Low [†]	85	19.98±7.80	0.000
	High [†]	191	23.74±7.76	
Decision latitude	Low [†]	103	23.51±7.77	0.012
	High [†]	173	21.03±8.04	
Supervisor support	Low [†]	117	24.17±8.12	0.004
	High [†]	159	21.42±7.63	
Coworker support	Low [†]	99	23.82±7.48	0.048
	High [†]	177	21.89±8.13	
Social support	Low [†]	132	24.26±7.59	0.001
	High [†]	144	21.05±7.98	
Total		276	22.58±7.95	

^{††}Each total score was divided by the median and categorized into low and high

업무 자율성($r=-0.227$, $p=0.000$), 상사의 지지도($r=-0.266$, $p=0.000$), 동료의 지지도($r=-0.190$, $p=0.002$), 사회적 지지도($r=-0.273$, $p=0.000$)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 요구도($r=0.312$, $p=0.000$)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3.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 행위,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취미생활 유무, 평균 수면시간, 업무 요

Table 5. Pearson correlation between psychosocial di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Variable	Psychosocial distress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Age(year)	$r = -0.115$	0.049
Clinical career(year)	$r = -0.148$	0.014
Salary(10 ⁴ Won)	$r = -0.152$	0.012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r = -0.202$	0.001
Socioeconomic status of dental hygienist	$r = -0.187$	0.002
Future status of dental hygienist	$r = -0.233$	0.000
Job demand	$r = 0.312$	0.000
Decision latitude	$r = -0.227$	0.000
Supervisor support	$r = -0.266$	0.000
Coworker support	$r = -0.190$	0.002
Social support	$r = -0.273$	0.000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sychosoical distress and its related factors

Variable	B	SE	Beta	T	p-value	R ²
Hobby time	-2.163	0.908	-0.135	-2.383	0.018	0.299
Sleeping hours(/day)	-1.079	0.505	-0.121	-2.137	0.034	
Job demand	0.849	0.269	0.185	3.156	0.002	
(Constant)	36.844	11.053		3.334	0.001	

구도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설명력은 29.9%였다. 즉 취미생활이 없는 군일수록, 평균 수면시간이 부적당한 수면군일수록, 업무 요구도가 높을 때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6>.

4. 중괄 및 고안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치과 의료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과중한 업무와 의료소비자와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지도와의 차이로 치과 위생사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직무 환경과 직무의 내용이 다양해진 치과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¹³⁾,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이 낮은 군에서, 미혼군에서, 취미생활이 없는 군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¹⁴⁾와 유사한 양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은 직무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미혼에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은 결혼생활이 반려자로 인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업관련 특성별로는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월평

균 급여가 적을수록,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군일수록, 치과위생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군일수록, 치과위생사들의 지위에 대한 전망이 「현재보다 못할 것이다」는 군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 경력별에 있어서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¹³⁻¹⁴⁾와 유사한 양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련 행위별로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운동군에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비운동군에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¹⁵⁻¹⁶⁾와 유사한 양상으로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¹⁷⁾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적절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다고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 요인별로는 업무 요구도가 높을 때, 업무 자율성이 낮을 때, 직장 내 상사나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 때, 사회적 지지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¹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직장의 상사와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²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연령, 근무 경력, 월평균 급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들

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들의 지위에 대한 전망, 업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 사회적 지지도 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미생활 여부, 평균 수면시간, 업무 요구도가 선정되어 다양한 요인이 스트레스 수준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로 인과관계는 구명하지 못하였고, 대전광역시 일부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치과위생사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수를 포함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업무상황에서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장과 생산성의 증가에 원동력이 되지만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 불만이 증가되어 만족도를 저하시켜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며 질병을 얻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개인 및 직장 단위의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직무환경의 개선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사회심리적 스

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대전광역시 소재 치과외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7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연령이 낮은 군에서, 미혼군에서, 취미생활이 없는 군에서,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월평균 급여가 적을수록,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군일수록, 치과위생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군일수록, 치과위생사들의 지위에 대한 전망이 「현재보다 못할 것이다」는 군일수록, 비운동군에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에서, 업무 요구도가 높을 때, 업무 자율성이 낮을 때, 직장 내 상사나 동료의 지지도가 낮을 때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스트레스는 연령, 근무 경력, 월평균 급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치과위생사들의 지위에 대한 전망, 업무 자율성,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 사회적 지지도 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취미생활 여부, 평균 수면시간, 업무 요구도 등이 선정되었으며 설명력은 29.9%였다.

치과위생사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Thoits P.A.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5;36:53.
2. 양명석. 간호사들의 근무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3. Carlson H.C. Improving the quality of work life. In P Mali(ED) Management Handbook, John Wiley & Sons 1981.
4. 한금선. 통합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정신생리질환자의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1997;27(2):289-302.
5. Hans Selye. The stress and syndrome. A.J.U. 1965;65(3):97-99.
6. 강부월. 조직몰입도 인과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7. 조정아, 정소희, 소천, 남기남. 직장인의 스트레스 양과 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대한가정 의학회지 1992;20(2):167-175.
8. 장계원. 임상 치과위생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진주간호보건대학논문집 1997;20(1).
9. Karasek RA, Theorell T, Schwartz JE, Schnall PL, Pieper CF, Michela JL. Job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in the US Health Examination Survey(HES) and the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ANES). Am J Public Health 1988;78(8):910-918.
10. Chang SJ.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Risk Factors for Psychosocial Distress, and the Development Work Site Stress Reduction Progra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p.4-16.
11. Goldberg DP.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England: NFER publishy 1978.
12. 장세진.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대한예방의학회편, 계축문화사, 2000, p.92-143.
13. 이성숙.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8;15(1):151-161.
14. 장세진, 고상백, 강병근 외 14인. 우리나라 직장인 스트레스의 역학적 특성. 예방의학회지 2005;38(1):25-37.
15. 강진욱, 홍영습, 이현재 외 5인. 제조업 남성 근로자의 피로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2005;17(2):129-137.
16. 박준한, 전진호, 강장미. 종합검진 수신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생활습관, 자각증상 및 임상적 진단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1998;31(4):728-738.
17. Breslow L, Enstrom JE. Persistence of health habits and their relationship to mortality. Prev Med 1980;9:469-483.
18. 장세진, 차봉석, 고상백 외 3인.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1997;30(1):129-144.
19. Pearlin LI, Menaghan EG, Lieberman MA, Mullan JT. The stress process. J Heal Soc Behav 1981;22:337-356.
20. Schoenbach VJ, Kaplan BH, Fredman L, Kleinbaum DG. Social ties and mortality in Evans county, Georgia. Am J Epidemiol 1986;123(4):577-591.

Abstract

Psychosocial distress of dental hygienists' and their related factors

Se-Young Han · Young-Chae Cho¹
Hee-Hong Min² · Min-Gyeong Ji³

Dep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¹Dep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³Dept. of Dental Hygiene, Jeonbuk Science College

Key words : dental hygienist, psychosocial distress, job characteristics

The levels of psychosocial stresses of dental hygienist were analyzed to reveal the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m.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performed, to 276 dental hygienist in Daejeon City. Univariat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with survey results, in which a degree of psychosocial stress was dependent variable and others were independent variable.

1. In terms of various levels of psychosocial stress according to the higher level of stress was found in the group of lower age, unmarried, and without spare times for hobby activities, the group with shorter-term job career, lower salary, and stress was found in the group who think that their job is considered as low position or their job is not high position in society or their prospect about job is discouraging, the group without regularly exercise, without regularly eating habits, in the group with higher level of job demand, lower job autonomy, and lower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in work than their respective counterparts.
2. Concerning correlation between psychosocial stress and various factors, while level of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ge, job career, salary,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socioeconomic status of dental hygienist, future status of dental hygienist, job autonomy, social support from superiors, social support from colleagues, social support, but i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job demand.

3.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psychosocial stress included hobby activities, sleeping hours, job demand, which has explanatory powers of 29.9%.

Therefore, to reduce of stress of dental hygienists,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effective strategy that institutional support for improvement of job environments and research for them be revitalized.

접수일-2009. 05. 25 수정일-2009. 09. 16 게재확정일-2009. 09. 20